

Interview

〈열린 지성〉 초대석



학생들 사이에서 '졸업 전에 꼭 들어야 할 관악 명 강의'로 꼽히는 수업 리스트가 돌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호 〈열린 지성〉은 수강 신청 10초 만에 마감되는 '현대 사회와 심리' 수업을 담당하시는 심리학과의 최인철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10초 만에 마감되는 관악 명 강의, “현대 사회와 심리”

최인철 교수를 만나다

1.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현대 사회와 심리(이하 ‘현사심’)'는 학생들 사이에서 늘 빠지지 않고 관악 명 강의로 꼽히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어요?

제가 2000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해오면서 교양으로 ‘심리학 개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론’이란 수업은 한 분과 학문의 모든 분야를 A부터 Z까지 소개해야 하는 수업이지요. 그러다보니 문제점이 두 가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가르쳐야 했다는 겁니다.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동기 부여가 안 되고 최대의 교육 효과도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지요.

이때 교수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교양 파트가 생겼습니다. 교수 자신이 전문성을 가진 부분과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분야만 골라서 편집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아무래도 교양이다 보니 이론이나 개념적인 부분들은 줄이고, ‘어떻게 사는 게 좋다’와 같은 걸 얘기해주는 수업들이 내 학창시절엔 없었으니 시도해보고 싶어서 ‘현사심’을 개설했습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에서 하는 내용을 학생들 뿐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던진다고 생각하며 강의하는 거지요.

수업 진행의 커다란 가닥을 짚어 보면, 첫 번째는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다루고, 세 번째는 어떤 편견들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동양과 서양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회나 역사적 배경을 벗어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차이’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재밌게 생각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만큼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심리학은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물론 문화 현상에서의 ‘차이’나 ‘다양성’은 결과적으로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각기 현상적으로 다르게 드러나는 심리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기제는 보편적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모두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심리적 작동 기제는 보편적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는 다르나 과정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전제가 문화적인 심리 차이를 연구하는 것과 꼭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심리학의 분과는 정말로 다양한데요, 하지만 그 다양한 분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 분석'이라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리학에 대한 오해야말로 정말 '일반적'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는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포함하여 프로이트와 같은 정신분석학이나 인문학적 요소 등등을 섞어 '심리학'을 떠올리는 것 같더군요. 이런 이야기들도 일정 부분 맞지만 현대의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논의를 이끌어가는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인문학 분야에는 인간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심리학에서는 어떤 논의라도 데이터 없이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심리학적 접근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적인 접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친 학생들은 많이 당황합니다.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파악한다는 건 뇌나 신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사회·문화적 존재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 수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과

수업들은 교양일지라도 뇌나 신경과 관련된 생물학적 부분들을 포함하여 '심리학적' 시각을 짚어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4.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만큼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 모두를 진행하실 텐데, 각 수업에 임하실 때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교양'과 '전공'의 차이를 아울러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양이건 전공이건 강의 준비에 들이는 노력이나 마음가짐은 같습니다. 다만 전공은 개념이나 이론, 연구 방법론 등의 엄밀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교양은 융통성 있게 삶에의 적용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은 교양이나 전공이냐에 따라 태도를 달리해서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 점이 좀 불만입니다. 교양이라고 가볍게 듣는데 '교양'이나 '전공'은 행정상 나뉘든 '이름'일 뿐 두 가지 모두 중요하거든요. 학교 내의 행정 체계 자체가 교양과 전공이란 이름을 너무 경직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갈라놓다 보니 잘못된 우선순위가 세워져 교양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지요.

5. 핵심 교양 수업을 1학년에 제한해두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애초에 핵심 교양이 1학년의 교양 교육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2학년 이상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10%에 한정해두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과목들에서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벌어지는데 선생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개방했으면 하는 건데, 사실 학교 강의가 뭐 그리 많겠습니까(웃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점이라든가 강의실 규모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강의실 크기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이들이 들었으면 합니다. 학년 제한에 관해서는, 그리 합리적이지는 않은 규정인 것 같네요.

핵심 교양 수강반·수강 인원 제한에는 좀 더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글쓰기 과제 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는 취지는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학교의 강제적인 지정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일정 부분 이상은 강의자에 맡겨줬으면 합니다.

6. 특히 인기 강좌들의 경우 '초안지' 제출도 굉장히 치열한데, 선생님은 매 학기 몇 장 정도의 초안지를 받으시고, 다 받을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받아주고 싶지만, 본부에서 정해주는 초안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원의 10%, '현사십'은 200명이니 20명 정도인데, 지금껏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았습니다. 선착순은 너무 잔인하다 생각되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학기는 시도해볼까 생각중이고, 그동안은 F나 D를 받아서 졸업할 수 없는 재수강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재수강 다 받아주고 나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고학번을 우선 듣게 해주었는데, 워낙 많이 내다보니 학번 순으로도 애매한 경우에는 랜덤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7.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강의의 인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회 심리학이 가진 매력 이외에 더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은 다소 진화 중입니다. 연구한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연구는 매우 엄밀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다 보니 개인적인 철학이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데 반해, 교육도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데에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의 경우 처음에는 교육도 연구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점점 여유가 생기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웃음) 수업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을 반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 기준에 의하면 '현사십'은 좋은 수업이 아닙니다. 대형 강의라 학생과 교수 간의 교류도 없고, 글쓰기 과제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보통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뿐이니 그 외의 것들은 기대하지 말라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좋아해 준다니 정말 고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대평가 된 것 같네요.

8. 그렇다면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요?

교수로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의가 그 분야의 연구 내용만 제대로 전달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 없다는 시각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용과 교수법 모두를 중시하는데, 저는 이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면,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교수는 지식 생산자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거나 '좋은 교수법'만 지닌다고 해서 충분히 좋은 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지요.

9.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사십'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듣는 대형 강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매우 집중하는 게 느껴져서 가끔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지난 학기는 수강 신청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생겨 250명과 함께 수업을 했는데, 그 250명이 모두 집중할 때는 약간 겁이 날 정도예요.

한 번은 상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 남학생들이 스커트를 입고 들어오기란 정말 힘들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고 오면 학점을 잘 주겠다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끝나고 수많은 남학생들에게서 진짜 해도 되냐는 문의가 왔고, 다음 시간에 한 명이 정말로 스커트를 입고 강의실에 들어와 꽃다발을 줬죠. 이때 정말 재밌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몽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가끔 한 학기나 1년쯤 지나고 오는 e-mail들이 있습니다. 보통 종강한 직후에 많이 오는데 그것도 고맙지만, 특히 한참 뒤에 오는 메일들을 열어보면 정말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죠. 학생들에게 아주 고맙고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는 40여분 동안에도 '현대 사회와 심리' 수업을 듣고 싶다는 학생 두 명이 따로 초안지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인기와 선호도를 넘어 정말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신 최인철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 : 이명지 / 사진 : 서유경